

신학과 실천 제32호

ISSN : 1229-7917(Print)



기독교(목회)상담사의 신학적 성찰 - 임상현장에서의 상관관계의 방법 -

권수영

To cite this article : 권수영 (2012) 기독교(목회)상담사의 신학적 성찰 - 임상현장에서의 상관관계의 방법 -, 신학과 실천, 32, 369-396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기독교(목회)상담사의 신학적 성찰

- 임상현장에서의 상관관계의 방법 -

권수영

(연세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목회상담학)

■ 초 록 ■

신학적 성찰(theological reflection)은 조직신학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조직하는 학문적인 근본 구조로 이해되어 왔다. 신학적인 연구주제가 다양해지고 신학적 담론이 증가하면서도, 신앙인 개개인이 신학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과소평가되고, 일상의 경험을 성서와 전통과 대화하여 통찰을 얻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신학자들의 주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사회와 교회, 문화와 신앙을 연결하는 실천적 과제를 수행하는 실천신학자들의 신학적 성찰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이유다.

먼저, 본 연구는 1950년대 전통적 신학방법에 대항하여 ‘상관관계’(correlation)의 방법이라는 새로운 신학방법을 주창한 폴 틸리히의 당대 심리학자들과의 교류 경험을 추적하면서, 목회상담학 운동의 창시자 중 하나인 시워드 힐트너가 어떻게 틸리히의 상관관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켰는지 살펴본다. 문화와 실존의 질문에 대하여 신학적인 해답을 제시한 틸리히의 방법을 수정하여 일반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의 방법으로 인간경험과 기독교 전통을 상관관계로 엮는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한다.

이어 본 연구는 상관관계의 방법을 가지고 기독교(목회)상담 현장에서 상담사들이 어떻게 자신의 임상경험을 신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제를 집중하고자 한다. 상담 현장에서 전통(종교)과 경험(심리학)의 쌍방통행적 상관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임상적인 성찰방법으로 패트리샤 킬런과 존 드 비어가 제시한 5단계 신학적 성찰의 기술(경험-감정-이미지-통찰-행위)을 적용하여 본다. 상담사례를 제시하여 상담사의 신학적 성찰이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통찰하고 다시금 새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쌍방향통행의 상관관계적인 임상적 개입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하였다.

주제어

신학적 성찰, 폴 틸리히, 상관관계의 방법, 수정된 비판적 상관관계, 기독교(목회)상담

I. 들어가는 말

우리가 당면한 한국교회의 위기는 신학의 부재라는 가까운 지적이 적지 않다. 실은 신학의 종류와 양은 넘쳐나지만 우리가 당면한 사회현실과 문화와 대화하고 응답하는 ‘신학적 성찰’(theological reflection)의 부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교회사에 있어서 ‘실천신학’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성찰되고 논의된 계기도 현재 한국 개신교회가 겪는 상황과 매우 흡사한 암시점이 있다. 바로 80년대 중반이 미국 주요개신교회가 70년대 양적으로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크게 감소하여 점차 쇠퇴기를 맞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 죽음’의 신학, 혹은 ‘교회 없는’ 신학이 오히려 교회나 일반 신앙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된 막다른 골목에서 실천신학은 신학계와 교회에 공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할 시대적 과업을 안게 되었던 것이다.¹⁾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1987년 루이스 머드취(Lewis Mudge)와 제임스 폴링(James Poling)이 편집한 저술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실천신학의 미래 과제에 대하여 제안하면서 신학계나 교회가 신앙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성적으로 되돌아

1) 권수영, “실천신학이란 무엇인가?-제 분야와 전망.” 김동건 편, 『신학이란 무엇인가-구약학에서 신학의 조망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73-174.

볼 수 있도록 하는 ‘신학적 성찰’의 자료와 방법이 미미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만약 신앙인들에게 세상에 나가 ‘신학을 하라’(do theology)고 요청한다면,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말씀을 상황과 동떨어지게 인용하고, 오래 전 주일 학교 때 배운 모호한 기억들에 의존하여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어수선한 결과만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다.²⁾

‘신학을 한다’(doing of theology)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신학은 몇몇 신학자들의 학문적 유희도 아니요, 세상과 현실과 동떨어진 사변적 진리도 아니다. 신학은 신앙을 가진 누구나 깊이 성찰하고 세상과 대화하며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실천해 내야할 현재적인 담론이다.³⁾ 교회와 세상, 신앙과 문화 사이에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의 내용과 의미를 진지하게 사고할 수 있는 신학적 성찰 능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실천신학이 새롭게 자리매김한 시기에 실천신학자들이 맨 먼저 제시한 해법도 바로 신학적 성찰이다.⁴⁾ 진지한 성찰만이 올바른 신앙을 형성하고 실천하게끔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실천신학자들도 복음전도나 선교학, 설교학, 교회일치 분야 등에서 신학적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⁵⁾

본 연구는 이러한 신학적 성찰이 조직신학이나 실천신학의 담론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기독교(목회)상담의 임상 현장에서 상담사나 돌봄 제공자에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실천적인 기술(art of practice)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목회상담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폴 킬리히의 상관관계의 방법(method of

2) Lewis S. Mudge & James N. Poling, *Formation and Reflection: The Promise of Practical Theology*,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87), xiv.

3) 신학과 삶의 괴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실천신학적 대안에 대하여서는 위형운, “신학과 실천의 괴리현상 극복을 위한 실천신학적 삶의 고찰,” 「신학과 실천」 22(2010): 5-43을 참조하라.

4) 미국에서 신학적 성찰을 위한 워크숍과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플로리다 주 소재 신학적 성찰센터(Center for Theological Reflection)와 시카고 소재 목회학 연구소(Institute of Pastoral Studies) 등을 들 수 있다.

5) 김선일, “신학적 실천으로서의 복음전도,” 「신학과 실천」 23(2010): 5-30; 김순환,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실천신학적 성찰과 제언,” 「신학과 실천」 26(2011): 7-34; 이후천, “한국 토착화신학의 실천성을 향한 선교학적 성찰,” 「신학과 실천」 28(2011): 757-778; 김운용, “상담설교에 대한 설교 신학적 고찰과 그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0(2012): 291-319를 참조하라.

correlation)이 조직신학이나 목회신학, 그리고 실천신학의 학문적 연구의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일선 상담 현장에서 목회적 실천을 담당하는 임상가들에게도 기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페트리샤 킬런과 존 드 비어가 제시한 5단계 신학적 성찰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tradition)과 경험(experience)을 상관관계적으로 통찰하는 방법을 임상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들의 성찰방법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원 등 많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의 일상경험이나 목회경험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도록 지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⁶⁾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기독교(목회)상담 슈퍼비전에서 상담사를 지도감독하는 과정 중에 활용한 사례를 가지고, 임상현장에서 상담사가 자신의 임상 경험을 신학적으로 성찰하여 보다 상관관계적인 틀을 가진 기독교(목회)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신학적 성찰의 임상적인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티리히의 상관관계 방법과 미국 목회상담학의 발전

폴 티리히(Paul Tillich)는 독일의 신학자이다. 1886년 태생인 그는 나치 정권을 피해 1933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뉴욕에서 유니온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직을 시작하였다. 그의 신학방법론은 이전의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새로운 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망명 직후, 당시 미국에 불어 닥친 치료문화와 함께 등장한 여러 심리학자들과의 깊은 대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1940년대 당대 최고의 심리학의 거장들과 뉴욕심리학회(New York Psychology Group)에서 활동하였다. 그와 함께 학문적 교류를 했던 심리학자들은 에리히 프롬(Erich Fromm),⁷⁾ 롤로 메이(Rollo May),⁸⁾ 칼 로저스(Carl Rogers)⁹⁾ 등을 들

6) 킬런과 드 비어는 드 비어가 디렉터로 봉직하는 미국 테네시 주 소재 사우스대학교 신학연장교육센터(School of Theology Extension Center, University of South)에서 사역을 위한 교육(Education of Ministry; EF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학교육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4년 과정의 신학적 성찰 소그룹과정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7) 『사랑의 기술』, 『소유나 존재냐』 등의 저술로 유명한 프롬의 여러 저작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Erich Fromm/황문수 옮김, 『사랑의 기술』 (서울: 문예출판

수 있다. 또한 이 그룹에서 중요하게 활동한 인물이 목회상담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시워드 힐트너(Seward Hiltner)이다. 힐트너는 1950년부터 시카고대학교 신학부에서 목회신학 교수로 봉직하면서 목회상담학을 태동시켰다. 당시 칼 로저스는 시카고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틸리히는 심리학 동료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종교와 심리학의 연결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당시 미국사회에 불고 있던 심리치료운동으로부터 받은 통찰이 신학과 연결점이 된다는 점에 크게 고무되었다. 예컨대, 정신분석의 죄의식, 카타르시스, 억압, 수용 등이 신학의 전통적 개념인 죄, 용서, 용납, 은혜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특히 현대 심리학이 진단한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들인 강박, 억압, 소외 등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재해석을 시도하고, 기독교전통이 주는 해답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틸리히가 주장한 ‘상관관계’(correlation)의 방법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틸리히는 1951년 출간한 『조직신학 제1권』(Systematic Theology I)에서 상관관계의 방법은 “실존적인 질문과 신학적 해답의 상호의존적 연관을 통하여 기독교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¹⁰⁾ 이는 1940년대 심층심리학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틸리히의 학문적 소산이라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자.

틸리히는 1947년 발간한 그의 설교집, 『흔들리는 터전』(The Shaking of the Foundation)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학개념인 죄와 은혜를 심리학적 개념

사, 2006), Erich Fromm/차경아 옮김, 『소유나 존재냐』(서울: 까치, 2007), Erich Fromm/김석희 옮김, 『자유로부터의 도피』(서울: 휴머니스트, 2012) 등을 참조하라.

8) 국내에는 롤로 메이의 상담학 저술이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고, 최근에는 그가 함께 활동한 당대의 심리학자들의 실존주의 심리학 저술을 편집한 책이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Rollo May/이봉우 옮김, 『카운슬링의 기술』(서울: 분도출판사, 1999)와 Rollo May/이정기 옮김, 『실존주의 심리학』(부천: 상담신학연구소, 2005)를 참조하라.

9) 미국 내 심리치료로부터 비지시적 인간(내담자)중심 상담을 새롭게 태동시킨 칼 로저스의 저작도 최근 한국에 새롭게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Carl Rogers/오제는 옮김, 『칼 로저스의 사람 중심 상담』(서울: 학지사, 2007)과 Carl Rogers/주은선 옮김, 『진정한 사람되기: 칼 로저스 상담의 원리와 실제』(서울: 학지사, 2009)를 참조하라.

10)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ume On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60.

과 연결하면서 상관관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톨리히는 죄와 은혜가 신앙인은 물론 모든 현대인들에게 불가해한 말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실제적인 이해를 위하여 죄와 은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이에 ‘죄’(sin)라는 말에 대응할 수는 없으나, 그 말의 이해를 돕는 대체어로 ‘분리’(separation)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그는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리 상태에 있다는 말이고, 분리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는 개개의 생명 간에 있는 분리이고, 둘째는 자기로부터의 분리이며, 셋째는 ‘존재의 근원’으로부터의 인간 전체의 분리라는 것이다.¹¹⁾ 분리에 대한 삼중이해는 파편화된 인격의 심층심리적인 이해를 반영한다. 즉, “그것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 전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하나의 경험이요, 그것이 숙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죄과(guilt)이기도 함”¹²⁾을 설명한다. 강박증환자에게서 발견한 공포불안이 고스란히 종교인들의 무의식적인 죄의식(guilt)에 나타난다고 지적한 프로이트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인간 실존 그 자체가 분리라는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¹³⁾

톨리히는 정신분석학에 등장하는 인간 심리의 딜레마에 기독교복음이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믿었고, 심리치료의 언어와 신앙의 언어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고 통합의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신학적인 성찰을 진행하였다. 기독교적인 진리인 은혜(grace)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때도 심리학과 신학을 수렴하는 상관관계적인 통찰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톨리히는 은혜에 대한 개념 이해에 있어서 왕이요 아버지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의 과정으로 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배격해야 한다고 보고, 심층심리학적 인간 현실(인격적인 분열, 충돌 등)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심층심리학의 표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11) Paul Tillich/ 김천배 옮김, 『흔들리는 터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9), 199.

12) *Ibid.*, 200.

13) 프로이트가 해석한 종교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필자의 졸저, 권수영, 『프로이트와 종교』 (서울: 살림, 2005) 15-75를 참조하라. 프로이트의 종교이해에 대한 신학적(해석학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권수영, “기독교가 본 프로이트: 의심의 해석학을 거쳐 재통합으로,” 『의학행동과학』 6(2007): 55-66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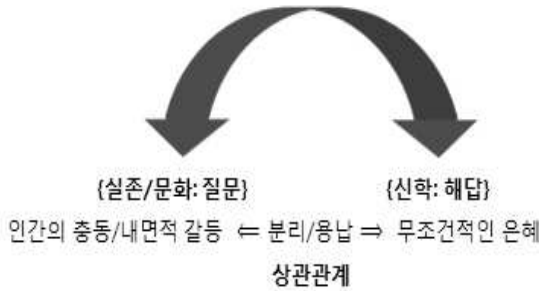
“만일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악이다.” 그 사도는... 자기 자신과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반항하는 이상한 그 무엇과의 사이에 있는 분열을 지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탈을 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또 그것을 ‘내 지체 속의 다른 법,’ 하나의 저항하기 어려운 충동이라고 불렀습니다.¹⁴⁾

틸리히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심층심리학적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신적 권능이나 능력도 아니라고 전제하고, 은혜는 생명과 생명과의 재결합이며 자기가 자신과 더불어 화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억압된 욕구로 인해 죄의식과 공포불안에 빠진 강박적인 현대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의 진수인 은혜를 용납(acceptance)으로 설명한다. 현대인이 분리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누군가 자신을 용납하신다는 사실, 즉 자신보다 위대한 자가 용납하신다는 사실이 은혜임을 강조한다. “아무 것도 구하지 말아라. 아무 것도 행하지 말아라. 아무 것도 의도하지 말아라. 다만 너를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용납하여라”¹⁵⁾고 결론내린다. 이를 요약하여 도식화한다면 아래와 같다.

당대의 최고의 심리학자들과 교류했던 틸리히는 심리치료의 핵심적인 원리나 임상적인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긍정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신학자들을 위하여 인간 경험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틸리히는 심리치료가 제공하는 심리학적 수용(psychological acceptance)이 결코 신학적 진리에 대한 대치물이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 즉, 심리학이 설명한 수용이 심오한 기독교적 진리, 즉 은혜로 인한 무조건적인 용납에 대하여 부분적인 설명은 될 수 있겠지만, 결코 대용물이 되거나 전적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결국 틸리히에게 심리학적 도구는 신학적 진리와 절대성으로

14) Tillich, 『흔들리는 터전』, 205.

15) *Ibid.*, 209.



[도표1: 틸리히의 상관관계의 방법]

이르기 위한 일종의 ‘전주’(a sort of ‘prelude’)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¹⁶⁾

현대사회가 가진 인간실존의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연관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응답하는 틸리히의 ‘상관관계’의 방법은 현대 예술, 철학과 문학 등 당대 여러 학문의 작업들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심리학과 심리치료와의 상관관계의 방법은 무엇보다 교회에서 목회적 돌봄을 실천하는 이들과 초기 목회상담 분야의 개척자들에게 신학적 통찰을 주기에 충분했다. 초기 목회상담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뉴욕심리학그룹에서 틸리히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시워드 힐트너는 ‘상관관계’의 신학방법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힐트너는 ‘문화’가 질문을 제공하고, ‘신학’이 응답한다는 구조가 지극히 단순하다는 지적과 함께 틸리히의 상관관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적어도 양방향통행(two-way street)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틸리히의 신학방법이 신학자들에게 문화와 인간의 삶의 문제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고, 일반인들에게는 신앙이 인간의 각종 문제에 궁극적인 해답을 제공한다는 점이 강조되지만 쌍방이 영향을 주고 받을 수는 없다고 반문한다. 즉, 틸리히의 방법이 기독교의 계시나 진리 뿐 아니라, 문화적인 지식, 예술, 문학, 신학 이외의 인접학문들도 그 나름대로의 통찰과 해법을 내포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상관관계가 진행되지

16) Elaine Graham, Heather Walton, and Frances Ward, *Theological Reflection: Methods*, (London, UK: SCM Press, 2005), 156.

17) Seward Hiltner/ 민경배 옮김, 『목회신학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305.

못했다는 것이다. 힐트너는 톨리히의 일방통행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비판한다. “만일에 신학이 늘 신앙의 적응이요 그 수용과는 무관한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화는 신앙에서 제기된 문제에 해답을 주고, 또 신앙은 문화에서 제기된 문제에 해답을 준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폴 톨리히는 확실히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놓기를 주저한 것 같다.”¹⁸⁾ 힐트너가 제시한 상관관계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도표2: 힐트너의 상관관계의 방법 비판]

힐트너는 자신의 상관관계 비판을 하나의 새로운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하지는 않았다. 그는 목회신학자로 목회신학이 신학적 사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로부터 나온 이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적용 그 이상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학적 사상과 현 시대의 문화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이 만나는 공간은 둘 다 공히 변화하는 그런 방식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그의 비판적 시도는 현대 목회신학과 실천신학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¹⁹⁾ 후대 학자들도 톨리히의 상관관계가 우리의 경험과 기독교 전통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공평하게 주고받기(give-and-take)를 허용하고 쌍방향으로 통찰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신학 방법은 지루하고(boring), 지극히 현학적인(pedantic) 방법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⁰⁾

18) *Ibid.*, 306.

19) James Woodward & Stephen Pattison/ 권수영 외 옮김, 『목회신학과 실천신학의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51.

III. 수정된 비판적 상관관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훗날 힐트너의 지적과 같이 문화의 ‘해답’과 신앙의 ‘해답’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수정된 상관관계의 방법이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시카고 대학교 신학부에 텔리히의 후임 조직신학교수로 임용된 트레이시는 상관관계방법의 살아있는 후계자라고 자임하면서 수정된 비판적 상관관계(revised critical correlation)를 역설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의 공통된 인간경험에 드러난 의미와 기독교전통의 일차적 텍스트에 드러난 의미를 모두 해석학적으로 성찰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²⁰⁾ 다시 말해, 문화적 문제와 해답들, 그리고 신앙적 질문과 해답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식화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도표3: 트레이시의 수정된 상관관계의 방법]

이 때 문화적 표현(예컨대, 심리치료적인 수용)과 신학적 주장(예컨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용납)이 정확하게 일치(identity)하거나 유비성(analogy)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가치와 해답들이 기독교적인 관점과 대치하면서 불일치(non-identity)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이러한 양자에서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러한 경우 어떻게 상관관계를 추진해야 하는가?

20) Howard W. Stone and James O. Duke, *How to Think Theologicall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127-128.

21) David Tracy, *Blessed Rage for Order: The New Pluralism in Theology*, (New York: Seabury, 1975), 237.

트레이시는 인간의 상황(situation)의 측면에서 종교가 언급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혹은 전통(tradition)의 측면에서 어떠한 종교적인 전통이 주장하는 해답이 지극히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두 상황과 전통이 가진 질문과 해답을 함께 철저히 성찰할 것을 요청한다.²²⁾ 실천신학자 단 브라우닝(Don Browning)은 트레이시의 수정된 상관관계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석학적 접근으로 교회공동체 내에서 신학적 성찰과 실천의 순환적인 과정을 추진하도록 기획하였다.²³⁾ 조직신학자 트레이시의 방법론이 교회(church)와 사회(society), 그리고 학문공동체(academy)라는 청중(public)에 대한 공적인 신학의 대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실천신학자 브라우닝이 회중과 공동체의 도덕적이고 공적인 실천에 대하여 강조하였다면, 한 개인으로서, 즉 목회자나 돌봄 제공자로서 수정된 비판적 상관관계를 어떻게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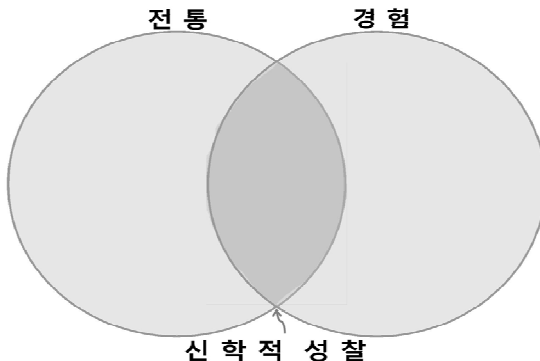
패트리샤 킬런(Patricia O'Connell Killen)과 존 드 비어(John de Beer)는 그들의 공저 『신학적 성찰의 기술』(The Art of Theological Reflection)에서 상관관계의 방법을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한 신학적 성찰방법을 소개한다. 킬리히나 트레이시와 같은 신학적 거장의 방법과는 달리 이들의 신학적 성찰은 무엇보다 평이하고 쉬운 언어로 진행된다. 엄청난 신학적인 소양이나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신학적 훈련이 없는 누구에게나 유용한 방법을 제공한다. 분석적 너 뿐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해내는 창조적인 뇌를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 말미암아 신학적 성찰이 고리타분한 학문적인 절차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 중에 경험한 것들을 매우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감각통합적인 신학적 성찰이 신학적 소양의 부족함을 느끼는 기독교(목회)상담자들에게 매우 유효하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 이들의 성찰방법이 어떻게 기독교(목회)상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킬런과 드 비어는 신학적 성찰은 기독교 전통(tradition)과 인간의 경험(experience)

22) David Tracy, *The Analogical Imagination: Christian Theology and the Culture of Pluralism*, (London: SCM Press, 1981), 64.

23) Don Browning,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chapter 5를 참조하라.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구하여 통찰을 얻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신앙인들이나 신학적 성찰을 시도하는 이들은 대부분 전통이나 경험 양자 중 한 쪽에 치중된 경향을 가지게 마련이다. 킬런과 드 비어는 전통에 치중하여 성찰하는 방식을 “확실성”(certitude)의 관점이라고 명하고, 경험에 치중하여 성찰하는 방식을 “자기 확신”(self-assurance)의 관점이라고 칭한다. 그렇다면 킬런과 드 비어가 주장하는 신학적 성찰이란 어떤 과정일까? 확실성의 관점이나 자기 확신의 관점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양자를 조화하면서 통찰을 얻는 방식으로 이를 “탐구”(exploration)의 관점으로 설명한다.²⁴⁾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신학적 성찰은 전통과 경험을 상관관계적으로 통찰하여 얻게 되는 지혜의 과정이다.



[그림: 신학적 성찰: ‘탐구’의 관점]

킬런과 드 비어는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신학적 성찰 그룹과 작업을 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이 성찰함에 있어서 어떻게 의미를 만드는가에 대하여 집중하도록 하였고, 인간 누구나 의미 있는 통찰로 나아가는 과정에 어떤 패턴이 있음을 관찰했다. 그 패턴의 주요 요소는 신학자들이 주로 설명하는 학문적인 거대담론에서 발견되는 인식적인 틀과는 달리, 성찰과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

24) Patricia O’Connell Killen & John de Beer/ 권수영 외 옮김, 『신학적 성찰의 기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24-43.

이었다. 킬런과 드 비어는 이러한 내재된 패턴을 “통찰을 향한 움직임”(movement toward insight)이라고 부른다.²⁵⁾

이러한 움직임은 경험, 감정, 이미지, 통찰, 행위의 다섯 영역을 거치게 된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를 경험으로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촉진하기에, 킬런과 드 비어는 이 다섯 영역들이 나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 (1)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 (2) 우리가 그러한 **감정**에 주의를 기울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
- (3) 그 **이미지**들을 성찰하고 의문을 품을 때 **통찰**이 번뜩인다.
- (4) 우리가 가까이 준비되었을 때 **통찰**은 우리를 **행위**로 이끈다.²⁶⁾

기독(목회)상담의 현장에서도 상담사는 전통이나 경험 한편에 치중한 신학적 성찰을 하고, 이러한 성찰에 근거한 임상적 개입을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상담사는 이러한 일방적 성찰을 넘어서 전통과 경험을 연결하고 통찰을 얻는 상관관계적 신학적 성찰을 제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상담사들이 경험-감정-이미지-통찰-행위의 단계를 거쳐 어떻게 신학적 성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학적 성찰이 어떻게 임상적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V. 사례연구: 5중 단계(경험-감정-이미지-통찰-행위)를 통한 신학적 성찰

기독상담사 남연진(가명)은 46세의 여성 상담사로 목회상담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인턴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녀를 찾아온 내담자 장소희(가명)는 26세의 신학대학원 상담전공 대학원생이다. 독실한 기독교집안의 1남 1녀의 장녀로

25) *Ibid.*, 45-46.

26) *Ibid.*, 다섯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2장을 참조하라.

아버지는 제조업을 하시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가이고, 어머니는 보험업을 하시다가 최근 신학공부를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내담자는 자신의 어머니와 늘 일상적인 이야기 뿐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관계였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의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였다. 내담자는 상담 첫 회기에 자신의 부모님이 지난 1년간 본인의 배우자를 위한 작정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남동생은 명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였고,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면서 같은 교회 여자 청년과 교제 중이다. 남동생의 여자 친구는 내담자의 가정에 한 달에 몇 차례씩 방문하여 식사를 할 정도로 부모의 신뢰 가운데 교제 중이다. 내담자는 부모에게 숨기고 교제 중인 남자 친구가 있다. 이 남자 친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서 신앙이 좋은 건실한 신랑감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에게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내담자는 교제 중인 남자 친구와 혼전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게 된 것이다.

1. ‘자기 확신’ 중심의 신학적 성찰: 이교도와 교제하지 말라?

상담사 남연진은 1회기 중 남자 친구와의 혼전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담자의 고백을 듣고 잠시 혼란에 빠졌다. 내담자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미혼의 여학생이고, 비기독교인과 교제하고 혼전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1회기 첫 대면을 축어록으로 살펴보자.

상1: 상담을 전공하신다고 했는데, 상담은 처음이신가요?

내1: 네, 실습으로 지인들과 연습한 적은 있지만 제 문제로 상담을 받는 것은 처음이에요.

상2: 그렇군요.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시면 좋겠어요. 상담접수지에 상담에 찾아온 이유를 ‘관계의 문제’라고 적었는데 어떤 문제를 의미하나요?

내2: 그냥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지 뭐 이런 것....

상3: 그 동안 어떤 관계에 특별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내3: 아니요, 그런 건 없었는데,,, 인간관계가 어려운 건 없거든요. 뭐라고 그래

야 되지... 제가 지금 남친이 있는데 안 믿는 애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네. 처음에는 신앙이 없는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더 좋다고도 생각했어요. 성경에 전도하라는 말은 있어도 이교도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 혼자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떨 때는 대부분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그러는 것처럼 같은 학교에서 비전도 같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자꾸 믿지 않는 남친만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나면 좀처럼 쉽게 내치지 못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4: 남자친구도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건가 봐요.

내4: 네, 대놓고 신앙 문제로 싸운 적은 없어요. 꼭 신앙적으로는 아닌데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괜히 싫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싸울 때는 엄청 대판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상5: 신앙 때문인가 아니면 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시나요?

내5: 주로 싸우는 건 일상적인 부분인데 내 안에 애랑은 언젠가는 헤어져야겠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어가지고...(목소리가 잠긴다)

상6: 그렇군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6: 저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24살이면 바로 분가해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4년 내내 교제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연애시절을 갖고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었어요. 그냥 집을 못 떠나고 대학원에 가고, 그나마 신앙 때문에 어차피 지금 남친이랑도 언젠가 헤어져야 하거든요. 우리 가족이랑 개네 가족이랑 맞지도 않으니깐. 개네 집은 전형적인 불교집안인데 우리 집은 엄청 기독교거든요. 우리 가족은 신앙 좋은 신앙감을 놓고 아예 걱정하고 작년부터 부모님이 기도를 하고 계실 정도이니까요. 지금 만나는 남친이 진짜 괜찮은데... 아직 소개도 못했어요. 신앙적인 것만 빼면 정말 조건도 좋고 대부분 좋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못 내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한번 헤어졌었

다가 또 다시 한 달 있다가 다시 만났어요. 기분은 별로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신앙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자꾸 맘이 복잡해져요.

상7: 우리 자매님 신앙이 참 좋은 거 같네요. 사역에 대한 생각도 있어서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신앙적으로 안 맞아 고민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사귀면서는 언젠가는 헤어져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만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때요?

내7: 흐흠. 뭔가 끝이 보이니까...원래 애 만나기 전에도 똑같은 상황인 애를 만났었는데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신 신앙 없는 애는 만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다짐했는데 맥없이 무너지고...

상8: 그때 다짐했던 건 뭐였어요?

내8: 나는 다시는 믿지 않는 사람 안 만나고 뭔가 비전을 가진 사람을 만나자.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도와주고 신앙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짐했던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상9: 신앙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가 돼서 뭔가 이루어보고 싶다 그거네요. 맞나요.

내9: 네.(서로 웃음)

상담사는 1회기 초기에 자신의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내담자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다보면서 자연스럽게 신학적 성찰을 하게 된다.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자꾸 믿지 않는 남편만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나면 좀처럼 쉽게 내치지 못하는 문제”(내담자 3)라고 언급한다. 하지만 상담사는 문제는 내담자와 남자 친구의 신앙이 다름이 문제라고 인식한다. “남자친구도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건가 봐요.”(상담사 4) 내담자는 언젠가 헤어질 불안을 느끼며 목소리까지 참기지만(내담자5), 상담사는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 상담사는 내담자가 언급한 문제를 왜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까?

상담사 남연진은 3대째 독실한 기독교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장로인 남편과 함께 자신의 출석교회 장애인부서에서 일하는 권사이다. 부부로서 긍정적인 평신도 사역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담사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부부가

신앙이 같다는 것이,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자기 확신’(self-assurance)에 찬 사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연히 내담자가 가진 문제는 남자 친구를 내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불신앙이 문제로 보이게 마련이다. 내담자가 언급한 것처럼(내담자 3) 이교도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성서적인 근거가 없을지라도 상담사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신학적 성찰을 하게 된다. 아마도 상담사가 불교집안에서 자란 이가 기독교인 배우자를 만나 회심하여 함께 기독교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면 다르게 성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슬람교에서와는 달리 기독교에는 이교도와의 결혼을 절대적으로 금하지는 않는다. 기독교 전통에 보면 이교도이자 로마관현이었던 아버지 파트리찌우스와 열성 기독교신도인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난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을 찾을 수 있다. 전통이 전하는 불신앙의 문제와 자신의 경험이 해석하는 불신앙의 문제를 상관관계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상담사 남연진의 지도감독자는 킬런과 드 비어의 신학적 성찰 방법을 소개하고 연습하도록 하였다. 일단 자신의 경험에 들어갈 때, 감정을 느끼되 판단하지 않고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 경우에 -하는 것이 좋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문장을 피하면서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²⁷⁾ 상담사는 “부부가 신앙이 같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접어두고, 자신의 경험을 마주하였다. 그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경험한 교회에서의 사역 가운데 느꼈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었다.²⁸⁾ 감사함, 보람 등의 긍정적인 감정이 먼저 느껴졌고, 이어 더 많은 감정들이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바쁨, 부담감, 답답함, 짜증 등의 감정들이 떠올랐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뜻밖의 경험으로 인하여 스스로 깜짝 놀라는 감정까지 느껴지게 되었다. 킬런과 드 비어는 피하고 싶은 감정을 나쁘다 하고, 가지고 싶은 감정을 좋다고 하는 이분법을 버리라고 충고한다.²⁹⁾ 나쁜 감정이라는 판단을 유보하고 감정에 주의를 기

27) *Ibid.*, 53.

28) 킬런과 드 비어는 감정은 통찰을 향한 움직임(movement toward insight)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보고, 감정 없이는 변혁적인 통찰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Ibid.*, 54.

29) *Ibid.*, 60.

울이는 연습이 중요하다.³⁰⁾ 상담자는 자신과 남편의 봉사사역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에게는 지친 부부의 모습이 떠올랐다. 또한 언젠가 본 적이 있는 에덴동산에서의 내몰리는 아담과 이브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통찰을 향한 움직임(movement toward insight)에 있어서 경험의 중심 감정을 포착하는 이미지는 내면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단서가 된다.³¹⁾ 지도감독자의 요청으로 갑자기 떠오른 그 아담과 이브의 시각적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내어 그 이미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이미지를 바라다 볼 때 아담과 이브 등 뒤에 하늘 위에 있는 빛의 이미지를 발견했다. 그 빛은 아담과 이브의 등 뒤를 비추고 있는 모습이지만, 고개를 숙인 아담과 이브는 그 빛을 버리고 떠나는 듯한 단호함이 보여졌다.



상담사는 자신과 남편의 평신도 사역 중에서 가졌던 무의식적인 고민과 함께 몇 가지 단상들이 떠올랐다. 교인들에게 인정받고자 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 생겼던 섭섭함, 담당 사역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담임목사님에게도 충분

30)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감정을 부인하거나 그 감정 안에서 허덕이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Ibid.*, 63.

31) *Ibid.*, 69.

한 칭찬을 받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여러 스트레스를 감내해 온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갑자기 이미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짜증과 두려움마저 느껴지고 이러한 감정의 기원을 스스로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이 통찰되기 시작했다.³²⁾ 상담사는 하나님과의 무의식적인 관계를 애써 숨겨왔던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로 인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남자 친구의 불신앙의 문제로만 치부하려 했던 자신의 태도를 깨닫게 되었다. 또한 상담사 자신과 남편의 기독교 신앙이 두 사람의 사역에 큰 구심점 역할을 하지만, 신앙만이 아니라 중요한 타인에게 기대하는 내면의 인정욕구와 하나님과의 정서적 경험 등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통찰을 더불어 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찰은 내담자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내담자에게도 문제는 신앙만이 아니었다. 그에게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중요할는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탐구(exploration)의 관점’이 생기게 된 것이다. 내담자가 ‘남자 친구를 쉽게 내치지 못하는 문제’는 실상 불신자인 남자 친구가 부모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자괴감과 이로 인한 방어적인 반감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점을 상담사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내담자는 자신의 부모가 표가 날 정도로 자신과 남동생을 차별하여 대우하지는 않았지만, 늘 남동생보다 열등하다고 느끼고 특별히 신학생인 자신보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남동생이 부모의 인정을 더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내담자가 불신자 남자 친구와 “언젠가는 헤어져야한다는 생각”이 신앙적인 이유 뿐 아니라, 부모의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얻기 위해서라는 심리적 동인은 상담에서 전혀 탐색되지 않았다. 결국 내담자의 문제가 오직 신앙의 문제로만 인식하도록 한 상담사의 ‘자기 확신’ 중심의 신학적 성찰이 보다 상관관계적인 틀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에 상담사는 신학적 ‘해답’만을 제공하는 일방통행식의 개입을 하고 말았다. 내담자는 믿지 않는 남자 친구와 교제하게 되는 자신의 패턴에 대하여 갈등하고 고민하지만(내담자 8), 상담사는 오히려 “신앙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고 격려하는 반응(상담자 9)은 쌍방통행의 상관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라고 보여진다.

32) *Ibid.*, 72. 킬런과 드 비어는 “이미지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의 결과”가 바로 통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확실성’ 중심의 신학적 성찰: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내담자는 자신의 죄책감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남자 친구를 만나기 전에도 믿지 않는 남자 친구를 만나고,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고 음주를 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를 회개하는 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불신자 남자 친구를 사귀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내10: 근데 남친을 통해서 짓는 죄가 되게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안 그럴게요 하고 또 그러고 안 그럴게요 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보아도 한심하죠. 엄마한테 어느 날 회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먹통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게 뭐냐니까 안 그런다고 하고 또 그러고 안 그런다고 하고 또 그러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는 누구를 만나는 것은 아는데 불신자라는 상황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상10: 반복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내가 죄라고 여기는 반복되는 부분은...

내11: 음...(한참을 머뭇거림) 말해도 되요? 성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되는 거 아는데도 뭔가 그래서...나도 모르게...

상11: 엄마도 아직 모르시고?

내12: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상12: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기도 하는데 자매님은...하나님 앞에 힘들었겠네요.

내13: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집 앞에 교회를 가서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허무한 느낌이 엄청 많았어요. 하고나면...(흐느낀다) 그래서 그 느낌이 싫어서 막 그랬었는데 “아, 하나님이 날 버릴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학교 가서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 나 자신도 부끄럽고 그런 게 있었는데 학교 체플시간에 찬양예배 인도하는 리더가 젊은 대학생들

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기독교인들이 혼전관계는 물론이고 낙태, 동거한다는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만 그러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또 넘어지고 안 그러겠다고 하는 것은 소용없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아는 거래요. 그래서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준 사랑이 더 크면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엄청 저한테 와 닿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길래 하나님이 날 버렸나하는 무서운 생각을 했는데...

상13: 나만 아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생각도 들고 응답도 안 해주시는 구나 느꼈었는데....

내14: 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걸 어떻게 되었던지 제가 들었잖아요.

상14: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렇고 믿는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자친구는 어떤 죄책감도 안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자매님만 혼자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힘들 수 있거든요. 이전에도 남자친구와 신앙 때문에 힘들었는데 현재의 남자친구도 신앙이 없고 그런 관계까지 갖게 되니까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모든 것을 마음에 혼자 담고 있으려하니 참 많이 힘들었겠어요.

내15: 네.

상15: 자신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죄 때문에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알지요? 다윗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쓰셨잖아요. 그런데 또 요셉은 왜 기록해놓으셨을까요? 요셉은 유혹 가운데 승리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시지만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기록해 놓지 않으셨을까 해요. 요한 일서에 보면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자매님 하나님 앞에 자꾸 다짐을 해도 바뀌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16: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남자 친구

와 깨끗하게 정리하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16: 그래요, 소희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사는 불신자 남자 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한 내담자의 죄의식을 다루면서 당혹감을 느꼈다. 상담사는 상담 수퍼비전에서도 지도감독자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주제가 바로 내담자의 비윤리적인 성적 행동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하였다. 진행된 상담에서는 상담사는 내담자의 죄책감 문제에 대응하여 회개하는 심령에 대한 하나님의 사면을 선포하는 성서구절을 인용하면서 내담자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기를 권면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자신을 발견하고, 상담 중 진행된 임상적 개입에 대하여 서도 만족감을 가지지 못했다. 상담사는 성서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회개와 용서에 대한 ‘확실성’의 관점에서 일방통행적인 신학적 성찰을 하고 있었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죄책감의 문제를 가장 강력한 신앙적 처방으로 해답을 주려 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상담사 16)

지도감독자는 다시금 상관관계적 신학적 성찰을 시도하도록 지도하였다. 혼전 성관계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상담사 자신의 경험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 다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중지하도록 권하였다. 지도감독자의 요청에 처음에는 혼전 성관계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언급하던 45세의 상담사는 갑작스럽게 정확히 20년 전의 일을 기억해냈다.³³⁾ 25세 대학생 시절 남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위하여 과외교사를 하던 때에 과외를 하던 여학생의 아버지에서부터 성희롱을 당한 기억이었다. 당시 여학생의 아버지는 자신을 따로 밖에서 만나서 과외비의 3배를 줄테니 자신과 은밀히 여행을 가자는 제의를 했고, 이를 거절하자 과외를 못하게 된 사건이었다. 당시 이 일은 자신에게 마치 성추행을 당한 듯한 수치심을 주었고, 이 일은 어느 순간부터인지 까맣게 기억 저편에 숨겨져 있었다. 당시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감정에 대하여 직면하라는

33) 킬런과 드 비어는 우리 내면 안에 암호화된 판단과 해석의 덩어리가 있어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자신의 상처와 수치심은 ‘절대’로 다시 경험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동하기에 오랜 시간 우리의 기억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다. *Ibid.*, 49.

지도감독자의 요청에 상담사 남연진은 수치심과 자괴감, 무력감 등을 느꼈다. 또한 저지르지도 않은 죄인데도 마치 혼전성관계라도 가진 사람처럼 죄책감이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행실 때문에 여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한 제안을 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에 주의를 기울이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벌거벗은 자신의 처녀성이었다. 자신의 처녀성은 무기력해 보였고, 나약해 보였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막이 있었다. 여대생 시절 경제적인 어려움과 낮은 자존감으로 굉장히 작아진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기독교 신앙은 콤플렉스가 많은 자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는 통찰이 들었다. 당시의 나약하고 벌거벗은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진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상담사는 이러한 이미지에서 자신이 자존감을 회복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곰곰이 묵상하였다. 과외교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버려진 느낌과 비참함이 한동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느꼈음을 통찰하게 되었다. 결혼 이후 신앙 좋은 배우자와 함께 열심히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서서히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경험하게 된 것 같았다.

상담사는 내담자에게도 버려진 느낌이 핵심 감정이라고 통찰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죄/용서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 내면에서 더 크게 내담자를 휘어잡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내담자가 언급한 “하나님이 날 버렸나하는 무서운 생각”은 바로 유기에 대한 처절한 공포와 불안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상담사는 혼전 성관계에 대한 윤리적 사고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기인한 불편함 등으로 내담자의 핵심 감정을 놓치게 된 것이다. 상담사는 이어지는 상담 회기를 통하여 내담자가 원가족 내에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무의식적인 압박감과 동생과의 비교를 통하여 스스로 축적했던 내면의 열등감을 탐색할 수 있었다.

상담사는 슈퍼비전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빠르게 진행했던 성서적 접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다만 인용한 성서구절의 적합성에 관한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죄책감을 가지고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내담자에게 요한일서의 말씀은 오히려 더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5중 단계(경험-감정-이미지-통찰-행위)의 신학적 성찰을 통하여 자신이 진행한 성서적 접근이 다분히 ‘확실성’의 관점에서 진행된 성찰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5중 단계 신학적 성찰로 말미암아 내담자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임상적 개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임상적 경험이 또 다시 자신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한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스스로 분리되어 버려진 느낌을 받는 내담자와 자신의 과거 내면적 경험을 통하여 그 분과 뜨겁게 하나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수용의 은혜 사건이 성서에 기록된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개인의 삶 한 가운데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인간 경험의 심리학적 이해가 신앙의 질문에도 새롭게 응답하게 된 순간이다. 그래서 킬런과 드 비어는 신학적 성찰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과 우리가 종교적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을 모두 확증하고 도전하며 확장한다고 지적한 것이다.³⁴⁾ 임상현장에서 마침내 오래 전 힐트너가 톨리히에게 부족함을 느낀 ‘쌍방통행’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V. 나가는 말

신학적 성찰은 조직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신학적 성찰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성서나 종교적 전통과 대화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고, 가장 적절한 실천을 가능케 하려는 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기독(목회)상담학도들이 무엇보다 먼저 훈련하고 연습하여 실천해야 할 기술이 바로 신학적 성찰의 기술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기독(목회)상담사를 위한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지도감독자들은 심리학적 성찰 뿐 아니라, 신학적 성찰을 지도하고 훈련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대부분 지도감독자들은 목회상담학의 역사에 있어서 신학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는 깊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학적 틀이 어떻게 기독(목회)상담의 현장에서 임상적인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을

34) *Ibid.*, 84.

까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³⁵⁾

이에 먼저 목회상담학이라는 학문과 이후 실천신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론적인 틀을 제공한 톨리히의 상관관계의 방법과 트레이시와 브라우닝에 의하여 제시된 수정된 상관관계의 방법이 어떻게 보다 실천적으로 임상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례를 통하여 킬런과 드 비어가 제시한 5단계 과정(경험-감정-이미지-통찰-행위)을 통한 신학적 성찰방법이 전통과 경험을 상관관계적으로 통찰하여 보다 체계적인 임상적 개입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5단계 성찰과정을 통하여 상담사가 전통에 집중한 ‘확실성’의 관점이나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자기 확신’의 관점으로 사례를 성찰하지 않고, 전통과 경험 양자를 균형감 있게 통찰하도록 하는 ‘탐구’의 관점을 취할 수 있었다. 결국 진정한 신학적 성찰은 탐구의 관점 안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경험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통찰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이끌어낸다.³⁶⁾ 본 연구를 통하여 임상적 기술 뿐 아니라 신학적 성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기독교(목회)상담학도들이나 기독교(목회)상담 분야 지도 감독자들이 보다 손쉽게 신학적 성찰을 이해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학적 성찰은 조직신학의 대가들에게 섬광처럼 비추어지는 계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가능해야 한다. 이는 신앙을 가진 누구나 매일의 경험들을 새로운 의미와 실천의 통찰로 엮어내야 하는 거룩한 습관이기 때문이다.

35) 기독교(목회)상담에 있어서 수퍼비전의 신학적 구조에 대하여서는 필자의 졸저, 권수영, 『기독교(목회)상담, 어떻게 다른가요: 심리학과 신학의 만남』 (서울: 학지사, 2007), 제5장을 참조하라.

36) Killen & de Beer, 『신학적 성찰의 기술』, 86.

■ 참고문헌 ■

- 권수영. 『프로이트와 종교』. 서울: 살림, 2005.
- 권수영.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 종교와 심리학의 만남』. 서울: 책세상, 2006.
- 권수영. 『기독교(목회)상담, 어떻게 다른가요: 심리학과 신학의 만남』. 서울: 학지사, 2007.
- 권수영. “기독교가 본 프로이트: 의심의 해석학을 거쳐 재통합으로.” 『의학행동과학』 6(2007), 55-66.
- 김동건 편. 『신학이란 무엇인가-구약학에서 신학의 조망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김선일. “신학적 실천으로서의 복음전도.” 『신학과 실천』 23(2010), 5-30.
- 김순환.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실천신학적 성찰과 제언.” 『신학과 실천』 26(2011), 7-34.
- 김운용. “상담설교에 대한 설교 신학적 고찰과 그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0(2012), 291-319.
- 위형운. “신학과 실천의 괴리현상 극복을 위한 실천신학적 삶의 고찰.” 『신학과 실천』 22(2010): 5-43.
- 이후천. “한국 토착화신학의 실천성을 향한 선교학적 성찰.” 『신학과 실천』 28(2011), 757-778.
- Browning, Don.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Fromm, Erich/ 황문수 옮김. 『사랑의 기술』. 서울: 문예출판사, 2006.
- Fromm, Erich/ 차경아 옮김. 『소유나 존재냐』. 서울: 까치, 2007.
- Fromm, Erich/ 김석희 옮김. 『자유로부터의 도피』. 서울: 휴머니스트, 2012.
- Graham, Elaine, Walton, Heather & Ward, Frances. *Theological Reflection: Methods*. London, UK: SCM Press, 2005.
- Hiltner, Seward/ 민경배 옮김. 『목회신학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 Killen, Patricia & de Beer, John/권수영 외 옮김. 『신학적 성찰의 기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May, Rollo/ 이봉우 옮김. 『카운슬링의 기술』. 서울: 분도출판사, 1999.
- May, Rollo/ 이정기 옮김. 『실존주의 심리학』. 부천: 상담신학연구소, 2005.
- Mudge, Lewis S. & Poling, James N. *Formation and Reflection: The Promise*

- of *Practical Theology*.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87.
- Rogers, Carl/ 오제은 옮김. 『칼 로저스의 사람 중심 상담』. 서울: 학지사, 2007.
- Rogers, Carl/ 주은선 옮김. 『진정한 사람되기: 칼 로저스 상담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학지사, 2009.
- Stone, Howard W. & Duke, James O. *How to Think Theologicall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Volume On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 Tillich, Paul/ 김천배 옮김, 『흔들리는 터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9.
- Tracy, David. *Blessed Rage for Order: The New Pluralism in Theology*. New York: Seabury, 1975.
- Tracy, David. *The Analogical Imagination: Christian Theology and the Culture of Pluralism*. London: SCM Press, 1981.
- Woodward, James & Pattison, Stephen/ 권수영 외 옮김. 『목회신학과 실천신학의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Abstract ■

Theological Reflection of Christian (Pastoral) Counselors

- The Method of Correlation in Clinical Context -

Sooyoung Kwon

Theological reflection has been considered as academic product of systematic theologians. Also, the method of theological reflection is often underestimated, and often fail to connect adequately with ordinary human experiences and theological scholarship. This article proposes the need for facilitating a correlational method of theological reflection that integrates the Christian tradition and clinical experiences among Christian (pastoral) counselors in their clinical context.

First, this study examines Paul Tillich's method of correlation. Faced with the fact that Tillich joined the influential New York Psychology Group in the 1940s, this opportunity moved Tillich towards a very specific example of the correlational method, by enabling him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connections between psychology and religion. The method of correlation, argues Tillich, explains the contents of the Christian faith through existential questions and theological answers in mutual interdependence. While Seward Hiltner, one of the frontiers of pastoral counseling movement, had been deeply influenced by Tillich's correlational method, he critically speculated whether the correlation should be conceived as more of a 'two-way street.' The study tackles the issue of how the correlation should take place in a mutual 'two-way street' manner between tradition (religion) and experience (psychology) in a clinical context. Utilizing the work of Patricia Killen and John de Beer's theological method, it is argued that theological reflection may confirm, challenge, clarify, and expand how we understand our own experience and how we understand the religious tradition. Killen and de Beer call this process the standpoint of 'exploration.' and warn that 'certitude' and 'self-assurance' standpoints keep us from deep insights and reflections. In this study, using a clinical example, the author argues that Killen and de Beer's 5 stage method of theological reflection (experience-feelings-images-insight-action) will be able to assist counselors to theologically reflect upon their clinical experience and enhance their therapeutic intervention afterwards.

Key Words

Theological Reflection, Paul Tillich, Method of Correlation, Revised Critical Correlation, Christian (Pastoral) Counseling

논문접수일 : 2012년 8월 16일

논문수정일 : 2012년 8월 21일

논문게재확정일 : 2012년 9월 5일